

제1절 선사유적*

한 지역의 문화는 독자적으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진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주변지역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 나름대로 지역적인 독특한 문화를 형성한다. 이러한 지역문화는 보편적으로 자연지세에 따라 형성된다.

순천을 중심으로 한 전남의 동부지역은 지형적인 면에서 볼 때 소백산맥의 영향을 받은 담양 금성산에서 무등산을 지나 장흥 천관산으로 이어지는 산줄기의 동쪽지역이고, 강으로 보면 섬진강과 그 지류인 보성강 유역이 이에 해당된다. 또 행정구역으로는 곡성군·구례군·보성군·광양시·순천시·여수시·여천시·여천군·고흥군 9개 시·군 전역과 보성강 유역인 화순군 남면·동북면·이서면·북면, 장흥군의 장동면·장평면도 포함된다. 이러한 동부지역은 서부에 해당되는 영산강 유역의 평야지대와 달리 대부분 산악지역이며, 평지는 강변이나 반도지역에 협소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러한 지형적인 영향과 더불어 두 지역의 고고학적인 특성도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 대표적인 예는 청동기시대와 고분시대에서 나타나고 있다. 청동기시대의 영산강 유역은 세형동검문화가 발달한 반면에 동부지역인 보성강·남해안 지역에서는 석검·비파형동검문화가 성행하였다. 고분시대의 영산강 유역에서는 옹관묘와 석실분이 많이 분포되어 있지만 동부지역에서는 고분이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점이 그것이다.

전남 동부지역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와 연구는 1980년대 중반부터 활발히 진행되었다. 본격적인 조사는 주암댐 수몰지역의 문화유적 조사로부터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지역의 고고학 조사와 연구는 비록 늦게 시작되었지만 다른 지역 못지 않게 유적이 존재하고, 이러한 많은 유적들이 조사되어 고고학 연구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최초의 발굴조사는 1928년 고흥군 두원면 운대리 지석묘 발굴에서 시작됐다. 여기서는 비파형동검편 1점과 유병식석검이 출토되었다. 우리나라 청동기시대 초기의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동검편이 전남지역에서는 처음 확인된 것이다. 그리고 발굴조사는 아니지만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에서 1932년 갯생원시설 확장공사 중 조문경(粗文鏡)편 1점, 마제석부 1점, 삼각형석촉 6점이 발견되었다. 또 조거룡장(鳥居龍藏)이 순천지역의 입석에 대해 보고한 것이 있다. 일제 이후 1960년대까지는 조사된 적이 없고, 1965년 국립박물관에서 우리나라 지석묘 연구의 일환으로 곡성군 목사동면 공북리와 순천 주암면 광천리의 지석묘를 발굴조사하였다. 또한 서울대의 동아문화연구소에서 남해안지역의 섬에 대한 고고학적인 조사로 고흥과 여천군의 도서지역을 지표조사한 바 있다. 이외에 김원룡이 구례 토지면 금내리의 지석묘를, 임효재가 순천의 지석묘를 각각 소개하였다.

1970년대에는 발굴조사된 곳이 없고 김학회가 고흥군의 선사유적에 대해 보고한 논문이 있다.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발굴조사나 지표조사가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1980년대 전반기에는 동북댐 수몰지역 지석묘, 고흥 포두면 장수리 지석묘가 발굴조사되었다. 이 시기의 지표

* 제1절은 이영문(李榮文) 집필임.

조사는 이영문이 섬진강 유역, 동북담 수몰지구, 광양군, 구승주군 등을 맡았고 서성훈·성낙준 등이 고흥지역을 각각 조사하였다.

1980년대 후반기에 들어오면서 주암담 수몰지역에서 대규모 발굴조사가 실시되는 등 매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주암담 수몰지역에서는 구석기 유적, 청동기시대의 주거지와 지석묘, 원삼국시대 주거지, 백제시대 주거지 등 각 시대의 특징적인 유적들이 발굴조사되어 우리나라 고고학 연구에 매우 귀중한 학술자료를 제공해주었다. 주암담 이외에 여천시 봉계동·적량동·평여동·월내동, 여수시 오림동, 순천 황전면 대치리, 광양 원월리 등지에서 지석묘가 발굴되었고, 여천군 돌산읍 군내리 송도에서 신석기시대 조개더미(貝塚)가 조사되었다. 이러한 유적·유물의 발굴을 통해 전남 동부지역의 고고학적 특성을 살필 수 있다. 또 지표조사로는 오병무가 순천시와 고흥 나로도를, 조현중이 여천 돌산읍지역을, 정오룡이 여천군지역을, 최성락이 고흥군지역을, 임영진이 보성군지역을 각각 조사한 바 있고, 개별 유적으로는 보성 죽산리와 주암면 구산리 유적이 이영문에 의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조사 중 특히 주암담 수몰지역을 발굴한 결과, 후기구석기 유적의 확인, 신석기 유적의 존재 가능성, 청동기시대의 무덤·생활유적, 원삼국시대의 주거지, 백제시대의 주거지 등이 거의 문화적 공백 없이 나타나고 있어 고고학에서 매우 중요한 지역임이 밝혀졌다. 또한 여수반도지역의 발굴에서는 초기청동기시대의 표지유물인 비파형동검이 한반도에서 가장 많이 밀집·출토되었고, 이와 더불어 옥(玉)의 최대 출토지임이 드러났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전남 동부지역에 대한 고고학 조사는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 성과를 통해 각 시대의 유적들이 조사되어 전남 선사문화의 맥락을 추론할 수 있게 되었다.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각 시대에 걸쳐 많은 유적·유물들이 발굴되었다. 여기에서는 순천지역을 중심으로 각 시대별로 중요한 유적에 대해서만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한다.

